

No.41

Japan Weekly Digest

2010. 6. 28 ~ 7. 4

□ 금주의 이슈

- 휴대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주문(닛케이사설)
- JX홀딩스, 베트남에 대규모 정유소 투자
- 혼다, 베트남에서 200만대 생산계획 발표

□ 일본 정재계 소식

- 오자와 前간사장, 간 총리 집행부를 비판
- 고속도로 무료화 시범도입 37노선 50구간
- 마에하라 국토성장관, 미국에서 신칸센 세일즈

□ 경제산업성 및 기업 동향

- 나오히마 경산대신, 법인세 감세 “구체적 행동” 언급
- 의료 투어리즘에 대비한 인재육성계획 발표
- 전기자동차보급협의회 설립

□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

- 에코 보급 촉진과 저탄소산업을 축으로 한 성장
미즈호종합연구소 (2010.7.2)



한일경제협회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 자료제공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http://www.kje.or.kr>)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사오며,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02-3014-9888)

□ 금주의 이슈

- 휴대폰사업 재편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주문(닛케이 사설)
 - 닛케이는 28일, 최근 일본 휴대폰회사의 잇따른 합병 사례를 소개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시장에 의존해 왔던 과거의 전략을 반성하고 해외개척을 해야 한다고 주장
 - 일본 휴대폰사업의 과제는 NTT도코모 등 통신회사에 대한 의존도를 개선하고 세계에서 통하는 단말기를 저렴하게 개발·판매하는 것임
 - *지금까지 일본은 통신회사가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국내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구조였음
 - 세계에서 통하는 단말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구글이 제공하는 휴대폰 기본소프트 "안드로이드" 등 외부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
 - 휴대폰회사의 재편통합은 너무 늦었다고 평가하고 일본이 새로운 각오로 해외 진출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JX홀딩스, 베트남에 대규모 정유소 투자
 - 일본석유회사인 JX홀딩스가 베트남에서 정유소 건설과 시설운영에 참여하기 위해 대형 투자를 기획하고 있다고 닛케이에서 보도
 - 베트남 국영에너지회사인 페트로베트남(PVN)이 기획한 2개의 건설프로젝트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총사업비는 최대 8000억 엔에 이를 것으로 추정
 - *베트남정부의 승인이 나면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베트남 정부가 발표한 제1정유소, 제3정유소 투자에 참여(일일 정유능력 37만 배럴)
 - 일본정부는 6월 발표한 에너지기본법에서 에너지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시책을 발표함으로써 JX의 베트남 투자는 일-베트남 간 경제협력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
- 혼다 모터사이클, 베트남에서 200만대 생산계획 발표
 - 혼다는 29일, 베트남 모터사이클 공장의 생산능력을 2011년까지 30%가 늘어난 연간 200만대 증산계획을 발표
 - 생산 증설 비용은 7000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며, 증설에 따른 고용 인력은 1100명으로 늘어날 전망
 - 증산 이유는 자동변속기 모델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베트남은 세계에서 4번째로 큰 모터사이클 시장으로 성장(혼다 점유율 63%)

□ 일본 정재계 소식

○ 오자와 前간사장, 간 총리 집행부를 비판

- 오자와 前간사장은 **자녀수당 전액지급 포기** 등 민주당이 선거공약을 재검토하는 것에 대해 「약속은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권교체 이후,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그런 바보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냐?」라고 간 총리 집행부의 대응을 비판
- 오자와 씨는 「국민들과의 약속으로 정권을 교체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반드시 제가 최선을 다해 약속대로 실현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
- “부가세 10%” 증세에 대해서도 「낭비를 없앤 후 사회보장비용 등이 부족하면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되겠지만 부가세를 올리지는 않겠다고 한 것이니까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호소

○ 고속도로 무료화 시범사업 도입 전국37노선 50구간

- 정부는 28일, 고속도로 무료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전국 37노선 50구간에서 무료 운행을 시범적으로 도입했다고 발표
- 국토교통성은 (1)관광지의 고객유치 증가 (2)물류비용의 감소 (3)일반도로의 정체완화 등 지역에 대한 경제효과, 다른 교통기관에 대한 영향, 환경문제 등을 분석·검증하여 내년 이후 시책에 반영시킨다는 계획
- 무료화 구간의 총연장 길이는 1,626km이고 전차종이 대상이 됨
- *실험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

○ 마에하라 국토성장관, 미국에서 신칸센 세일즈 활동 전개

- 마에하라 국토교통성장관은 28일, 일본정부가 주최한 「시카고 고속철도 세미나」의 강연에서 미국정부 고위간부들에게 일본 신칸센의 기술 우수성에 대해 언급
- 마에하라 장관은 「일본 철도네트워크 정비, 운영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시카고 지역에서 고속철도 정비 추진, 철도산업의 육성에 공헌할 수 있다」고 강조
- *건설자금은 「국제협력은행(JBIC)」의 융자제도 활용 등 민관합동으로 지원 약속
- 세미나에는 미국 하원의원, 주의원 등 약500명이 참석하였고, 일본에서는 후지 사키 駐美 대사, JR히가시니혼 세이노 사장 등이 참석

□ 경제산업성 및 기업 동향

- 나오시마 경산대신, 법인세 감세를 위한 “구체적 행동” 언급
 - 나오시마 경산대신은 29일, 기자회견에서 법인세 인하에 대해 「국제적인 기업입지의 경쟁조건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2~3년에 걸쳐 논의할 여유가 없다면서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 하다고 언급
 - *법인세 인하는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
 - 부가세에 대해서는 「몇 년 후에 결론을 내려야하는 문제로 지금 세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야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한다」고 언급
- 의료 투어리즘에 대비한 인재육성계획 발표, 올해 60명 육성
 - 경제산업성은 의료기관에서 수진 등을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인을 늘리기 위해, 국내에서 의료와 어학 등의 인재육성 지원을 시작한다고 발표
 - 환경정비를 통해 외국인환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서 의료기술 향상, 의료 분야 통역업종, 여행대리점 등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표
 - 경산성은 러시아와 중국이 일본에서 건강진단이나 선진적인 치료에 대한 니즈가 높다고 판단
 - *금년 가을까지 의사들이 감수한 3개국 전용교재를 제작. 각 언어별로 20명, 합계60명 정도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강의와 의료기관에서 실습
- EV보급을 위해 35개 단체·기업으로 구성된 「전기자동차보급협의회」 설립
 - 베네세 홀딩스 등 전기자동차(EV)관련 35개 기업 및 단체는 29일, 「전기자동차보급 협의회」를 설립했다고 발표
 - EV자동차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EV용 전지와 충전지의 규격표준화를 하는 것이 목적(2012년까지 500사로 확대 계획)
 - 협의회는 EV보급 확산을 위해 사회적 인프라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며, 중소기업이 EV 관련 비즈니스에 참여할 때, 자금조달 등을 협의회에서 지원
 - LAWSON 사장은 「3~5년 후에는 충전기를 전국 점포에 설치한다」고 표명

□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

에코주택·자동차의 보급과 저탄소산업을 축으로 한 성장

미즈호종합연구소 (2010.7.2)

□ CO2삭감 효과와 수요·고용 창출이 큰 분야

○ 정부의 성장 전략목표

- 2020년까지 환경·에너지 분야는 50조엔 시장으로 확대, 140만명의 고용 창출
- 온실가스 배출삭감과 새로운 수요개척·고용창출을 동시에 달성시키는 정책이 필요

○ 유망분야

- 유망분야는 ①건물(주택·오피스)의 에너지 절약 ②차세대자동차 보급

*경산성 조사에서도 CO2삭감 효과가 큰 시책으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차세대자동차, 연비향상」을 제시

□ 「주택판 에코 포인트제도」 확충

○ 정부의 「주택판 에코 포인트제도」

- 2010년부터 도입 ①창문·외벽·지붕·천장의 단열개수 등 에코 리폼 ②에코주택의 신축이 기본
- 문제점: 환원율이 낮고, 한시적 제도(금년 말 종료 예정)

○ 제도의 효과를 지속·확대하기 위해

(1) 10년 이상으로 기한연장과 발행 포인트 확충

- (2)에코 포인트 활용이나 주택의 에너지절약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 보수 공사를 자치단체가 무료로 제공하거나, 신축·보수에 대한 세제 우대조치 확충이 필요

□ 차세대자동차 보급을 촉진시키는 3가지 정책

○ 차세대자동차의 보급 열쇠는 자동차가격의 인하와 인프라 부족에 대한 대응

➢ 양산 효과에 의한 가격 인하, 고속 충전시설을 전국적으로 정비

- (1)약40만대의 지방자치체 공용차를 향후 10년 이내 전기자동차 및 HV로 교체
- (2)고속충전기를 10년간 전국에 1만대 설치
- (3)에코자동차는 고속도로요금 완전무료화 실시

○ 향후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저탄소제품에 대한 수요유지를 위한 정책이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한 자원확보가 중요

출처: <http://www.mizuho-ri.co.jp/research/economics/pdf/research/r100701policy.pdf>

【일본 관련 주요 보고서】

□ 『신흥국시장으로서 중동지역』 도레이 경영연구소, 6월26일

- 중동지역의 전기시장에서 Made in Japan은 여전히 최상위 브랜드로서 인정받고 있으나, 공격적인 시장개척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기업에 비해 열세에 있음. 일본 기업은 현지 니즈에 대응한 제품 투입, 제품의 라인업 확충을 통해 중간층 개척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출처: http://www.tbr.co.jp/pdf/report/ind_g005.pdf

□ 『ICT활용으로 일본의 국제경쟁력 강화』 노무라종합연구소, 6월29일

- 일본의 대표적 인프라시스템인 ICT(정보통신)기술은 다른 나라를 압도하고 있음. 그러나 일본 ICT에 대한 평가가 낮은 이유는 일본 사회전체에서 충분히 이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임. 다양한 산업을 횡단적으로 연결하는 서비스에 ICT를 활용함으로써 일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실현해야 함

*출처: http://www.nri.co.jp/publicity/n_letter/2010/pdf/nl20100601.pdf

□ 『재정운영 전략과 중기재정 프레임에 대해』 미쓰비시도쿄UFJ은행, 6월30일

- 재정건전화전략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것은 평가. 그러나 세출 억제만으로 재정적자의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정적임. 부가세 인상 등 세제개혁에 의한 세입증가, 사회보장제도 재검토 등을 통한 세출삭감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출처: http://www.bk.mufg.jp/report/ecoinf2010/report_jp_20100623.pdf

【금주의 일정】

일 자	주 요 일 정
6월 28일(월)	○ 고속도로 일부 무료화 사업 시작(지방 중심) ○ 마에하라국토성장관, 미국 시카고 고속철도세미나 참석 ○ 5월 상업판매통계 발표(경산성)
6월 29일(화)	○ 5월 실업률 발표(총무성) ○ 5월 광공업생산지수 발표(경산성) ○ 5월 자동차생산·수출실적 발표(자동차공업회)
6월 30일(수)	○ 개정 육아·개호업법 실행 ○ 5월 매월근로통계조사 발표(후생노동성)
7월 1일(목)	○ 6월 일본은행 단칸 발표(일본은행)
7월 2일(금)	○ 6월 Monetary base 발표(일본은행) ○ 한일상공회의소 수뇌회의 개최(서울)